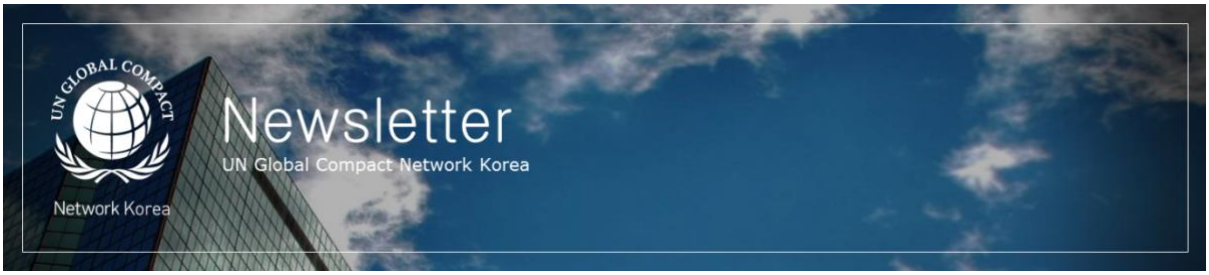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174 호

2018 년 2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2018 평창올림픽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토크 콘서트』 개최 안내 (2/6)
2. [Issue&Talk] 올림픽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
3. UNGC 회원사/평창동계올림픽 후원사 지속가능성 사례 모집 및 사례집 발간 안내
4. 『2018 Fair Player Club 국제회의 & 반부패 서약 선포식』 개최 안내 (3/7)
5. 준법윤리경영 Fair Player Club 세미나 개최 결과 - ASEAN (1/26)
6. 페어플레이어클럽 반부패 서약 안내

■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2018 UNGC 신년인사: 리세 킹고(Lise Kingo) UNGC 사무총장
2.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제약 계의 로빈 후드: 씨플라(Cipla)
3.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책임경영교육원칙(PRME), 경영대학원들에 글로벌 목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다

■ SDGs 소식

1. [Goal 4, 8] 국내 SDGs 우수이행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
2. [SDGs 시장 기회] 농촌 개발 이니셔티브

■ 회원사 뉴스

1. [Case Study] 오지마을 누비는 5G 버스...평창은 지금 특별한 변신 중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상 첫 '여성 별' 나왔다
3. 신한금융 지속가능경영 100 대 기업 6 년 연속 선정...국내기업 유일

■ CSR 뉴스

1. [Case Study]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래는
2. 정부차원 CSR 5 개년 종합시책 발표 예정... 취약계층 고용기업, 지자체 계약규모 확대
3. 국민권익위,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 바꾼다
4. 다보스서 지속가능개발 위한 민간역할 강조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8 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2018 평창올림픽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토크 콘서트』개최 안내 (2/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국내 소재 UN 기관 (유엔개발계획,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유니세프 서울사무소, 유엔인권사무소, 세계식량계획),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2018 평창의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토크콘서트를 진행합니다.

2 월 6 일 오후 3 시 서울 광화문 KT 올레 스퀘어 드림홀에서 진행되는『2018 평창동계올림픽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토크콘서트』는 평창 지속가능성 주요성과 연계된 5 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옴니버스 형식의 짧은 강연으로 구성됩니다. 강연에는 이엑 푸르 비엘 선수를 비롯, 평창 한식메뉴 개발에 참가한 대한민국 1 호 스타셰프 에드워드권, 평창 지속가능성 파트너 1 호 사업인 대관령 5G 빌리지 사업을 이끈 KT 이선주 지속가능경영단장, 진선유 올림픽 쇼트트랙 3 관왕, 이덕희 세계 랭킹 테니스 선수 등이 연사로 나서 지속가능성 레시피 및 인간중심기술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사전 참가 신청을 마친 일반 대중 200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사전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 링크]

2. [Issue&Talk] 올림픽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

■ 올림픽과 지속가능성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글로벌 축제입니다. 하지만 수 년간의 준비기간이 무색할 만큼, 한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경기 기간은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올림픽이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멋진 유산으로 남을 수는 없을까? 올림픽과 지속가능성의 멋진 만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올림픽의 노력의 시작은 1994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올림픽 개최를 위해 파괴되는 환경 생태계와 무분별한 개발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올림픽에 있어 지속가능성이 화두가 되었으며, 이듬 해 스포츠와 환경 위원회(Sport and Environment Commission)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도 IOC 에 스포츠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996 년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내용이 올림픽 헌장에 추가됨으로써, 환경 보호는 올림픽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2014 년 발표된 올림픽 아젠다 2020(Olympic Agenda 2020)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은 올림픽의 청년, 신뢰성과 함께 세 가지 핵심 가치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올림픽을 투명하게 만들다

지속가능성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빠질 수는 없죠! 리우 올림픽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바로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 중 하나인 반부패를 주제로 한 "Clean Games Inside and Outside of the Stadium" ("경기장 안팎으로 공정한 경쟁") (이하 Clean Games)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Clean Games"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세계 선수들과 관중들이 몰려드는 올림픽 개최지에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며, 많은 경기장과 건물, 편의시설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정당당하고 서로 협력하는 올림픽 정신을 본받아 경기장 밖에서도 청렴하고 투명한 '페어 플레이'를 하자는 취지로 지어진 이름이 바로 "Clean Games" 입니다.
경기장 밖에서의 페어 플레이는 투명하고 청렴한 건축과 인프라 구축, 공공비 지출을 뜻합니다. "Clean Games"는 건설, 에너지, 교통과 같은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로부터 반부패 서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림픽 관련 공공 프로젝트들의 지출 현황을 웹사이트에 공유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유엔글로벌콤팩트는 "Clean Games" 를 통해 모두의 축제인 올림픽에 새로운 가치를 더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올림픽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 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서 지켜져야 할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 올림픽 위원회(Italian 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2016 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평창올림픽

온 국민과 전세계인이 기다려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2018 년 2 월. 평창은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꿈꾸며, 그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여정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함께했습니다. 바로 2018 평창 올림픽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지속가능성 파트너와 서포터들로, 이 중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KT 그룹 블로그

KT 는 평창 의야지마을에 5G 빌리지를 설립해 마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소외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그 중에는 의야지마을 주민들의 고민거리였던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신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 시설에 활용될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드론 등은 강원도의 '핫 플레이스'로 성장할 의야지 마을의 미래를 책임질 고마운 기술들입니다. 5G AR 마켓에서는 360 도 영상을 통해 실제 전통시장에 간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중 하나이던 의야지마을, 평창올림픽 소외지역이었던 이 마을은 KT 의 기술을 통해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최첨단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처: 2016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 다른 지속가능성 파트너, KEB 하나은행은 '하나 통일원정대'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의 멘토 청년들로 구성된 '하나 통일원정대' 합창단은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한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회원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위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와 MOU 를 맺고 평창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공동노력 캠페인 및 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우수 사례 발굴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달 발간된 평창 지속가능성 1 차 보고서 '2018 평창, 인간과 자연을 윤택하게'에는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님의 인사말이 수록되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 이후 개최되는 첫 동계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한 달 간의 성공이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지속가능성 추진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18 평창 지속가능성 1차 보고서」 발간을 축하 드립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증대를 위한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로, 민간부문이 UNGC의 핵심 가치인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내재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은 올림픽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지 오래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96년부터 올림픽 헌장에 환경보호를 명시하였고, 2014년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담은 '올림픽 아젠다 2020(Olympic Agenda 2020)' 로드맵에서 '청년(Youth)', '신뢰성(Credibility)'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올림픽 3대 핵심 가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엔(UN)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가 국제사회의 목표들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열리는 첫 동계올림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상쇄, 친환경교통 인프라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녹색조달, 생물다양성 유지 등 SDGs 달성을 위한 평창의 노력은 평화와 화합을 위한 축제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유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동계올림픽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UNGC 한국협회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인 기업이 지속가능한 평창올림픽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을 전개하며, 우수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례 발굴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평창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세 번의 도전 끝에 얻어낸 대한민국의 첫 동계올림픽이 지속가능한 올림픽의 표본으로 기억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민간부문의 인식 확산과 적극적인 행동의 분수령이 되길 바랍니다.

2017년 12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이 동 건** 이동건

출처: 2018 평창 지속가능성 1 차 보고서

3. UNGC 회원사/평창동계올림픽 후원사 지속가능성 사례 모집 및 사례집 발간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의 성공 개최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UNGC 회원이자 대회 공식파트너/스폰서들의 대회 관련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속가능성 활동을 담은 **<UNGC 회원사 /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사 지속가능성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유엔(UN)은 사회발전, 평화, 인권 증진 등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스포츠의 힘을 믿고 있으며, 올림픽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의 10 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로써,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실현을 위해 2016 리우올림픽조직위원회, 2020 도쿄올림픽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협회는 2017 년 7 월부터 우리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창 지속가능성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및 대회 공식 스폰서 기업들과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지속가능한 평창 동계올림픽 실현을 위해 힘쓰는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사례를 발굴하는 공동노력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국내외 주요 회의에서 유엔, 각국 정부, 전세계 기업 및 시민사회 대표들에게 소개배포됩니다.

<UNGC 회원사 /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사 지속가능성 사례집> 참여를 희망하는 대회 후원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연계된 지속가능성 사업/활동, 관련 SDGs 목표
  (국문, 영문 모두, A4 1~2 장, 글자크기 10, 사진 1-4 장), 회원사 로고 (국영문)
- 일정: 2 월 9 일(금) – 참여 여부 조사 (Google 링크) / 2 월 28 일(수) – 자료 제출
- 발간: 3 월 중순 예정

문의: 소 완 연구원
T. 02-749-2149
E. wso@globalcompact.kr

4. 『2018 Fair Player Club 국제회의 & 반부패 서약 선포식』개최 안내 (3/7)

[참가 신청]

5. 준법윤리경영 Fair Player Club 세미나 개최 결과 - ASEAN (1/2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1월 26일(금) 서울스퀘어 3층 컨퍼런스룸에서 한-아세안센터, (사)한아세안포럼과 함께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아세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FPC) 3차년도 국가별 세미나의 마지막 행사로 열린 본 세미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지역에 진출 기업 관계자 및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업 우수 컴플라이언스 사례를 공유하고, 아세안 지역의 반부패 법·제도 소개와 함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브루나이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ASEAN) 시장은 GDP 2조 6천억 달러, 연 5% 성장률의 역동적인 시장으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과 박상원 (사)한아세안포럼 회장, 럼추콩 지멘스㈜ 수석부사장/CFO, 엄성필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 모리스 버크(Maurice Burke) 호건 로벨스 싱가포르(Hogan Lovells Singapore) 파트너 등 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왼쪽 사진)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오른쪽 사진) 박상원 (사)한아세안포럼 회장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전세계 인구의 8.7%를 차지 하는 아세안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 기업들이 UNGC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에 외국계 기업으로서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원 (사)한아세안포럼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아세안 시장은 중국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아세안 지역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시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럼추콩 지멘스㈜ 수석부사장/CFO

럼추콩 지멘스㈜ 수석부사장/CFO는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확립을 위한 노력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강조하며, "지멘스는 2006년 위기 이래로 준법, 준법윤리경영에 많은 돈과 우수한 인력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지멘스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멘스는 오늘날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기업, 존경 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전했습니다.

(왼쪽 사진) 엄성필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
(오른쪽 사진) 모리스 버크(Maurice Burke) 호건 로벨스 싱가포르 파트너
(가운데 사진) 곽 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과장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엄성필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이 '아세안의 비즈니스 환경과 기회'를 주제로 아세안 회원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고,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엄성필 부장은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우리 정부의 '신(新)남방정책' 선언 이후, 아세안에 관한 기업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밝히고, 아세안 지역은 인종, 종교, 문화 외에도 사업속도, 소득 격차 등 여러 방면으로 다양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 진출 시 과거 생산기지로서의 진출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사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리스 버크(Maurice Burke) 호건 로벨스 싱가포르(Hogan Lovells Singapore) 파트너는 아세안 지역의 반부패 최신동향과 함께 국가별 진전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모리스 버크 파트너는 아세안 3개국(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반부패법 개정을 들어 아세안 내 '부패행위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 확대', '기소유예약정(DPA)의 중요성 증가', '제3자 리스크 확산'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기업 지배구조 및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해 아세안 국가에서도 상당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체계를 갖추기 못할 경우 규제당국에 기소될 수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곽 글 UNGC 한국협회 과장은 협회가 연구·발간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Compliance Package) – 아세안편>을 소개하며, 해당 발간물의 기업 활용 방안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지침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부패방지 법과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곽 글 과장은 아세안 지역 대표 반부패 협력체인 'ADB 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반부패 법·제도, 기업 위반/대응 사례를 간략히 설명하고,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법 제·개정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반부패 법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의 사전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왼쪽 사진) 이상준 ㈜로딕스 회장
(오른쪽 사진) 박종근 지멘스(주) 윤리경영실장

우수기업 사례 발표에는 대표적인 아세안 진출 기업인 ㈜로딕스와 준법윤리경영 모범기업인 지멘스㈜가 각각 자사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상준 ㈜로딕스 회장은 다년간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아세안 국가에서 사업 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대응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상준 회장은 기업이 아세안 시장 진출 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할 방안책을 마련한 후 진출해야 한다고 역설한 뒤, 이를 위한 3가지 대응방안으로 공정거래를 위한 '공생공영 사상', '부패 대응 전략의 개발'과 '구조적인 투명성 개선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근 지멘스㈜ 윤리경영실장은 예방, 발견, 대응의 3개 축을 중심으로 하는 지멘스㈜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과정과 반부패 의지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메시지 및 노하우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안젤라 강주현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의 FPC 소개 및 반부패 서약 안내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FPC) 사무국은 오는 3/7(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8 Fair Player Club 국제회의 및 반부패 서약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OECD 부패방지 워킹그룹, 드라고 코스(Drago Kos)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함께하는 국제회의로, 특히 FPC 서약기업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지향하는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세레모니를 가질 예정입니다. 회원사 및 서약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 페어플레이어클럽 반부패 서약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에서는
Fair Play 반부패 서약을 통해 한국의 산업별 준법·윤리 경영 증진 활동에 동참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세계은행과 독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24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5년부터 3년간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살린 현장 중심의
준법·윤리 경영 교육, 연구 및 다양한 인식제고 확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는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기계, 철도, 해외건설, 의료산업 등의 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산업별 리스크 예방 및 준법·윤리경영 역량강화를 지원하였으며,
2차 년도는 7대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및 지역상공회의소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지방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와 준법·윤리경영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올해는 유럽·아시아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스웨덴, 영국, 독일, EU, 중국, ASEAN)와 함께
해외 진출 한국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확립과
공급망 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3차 년도를 마무리 하며 정부 유관 부처 대표, 1차~3차 년도 공동주최기관 및 서약 참여 기업 임직원을 모시고
"Fair Player Club 반부패 서약 선포식"을 오는 2018년 3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반부패 서약에 동참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FPC 참여 기업 혜택 및 기대효과

- 반부패 관련 국제 기준(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英 뇌물수수법 등) 소개 및 국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민관협력을 통한 준법·윤리경영분야 교류 확대
-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세미나 참석 후 수료증 제공, 해당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노력에 대한 국내외 홍보
- 준법·윤리경영 자가진단 툴 및 관련 자료 제공

주최: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주관: GCEF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페어플레이어클럽 사무국 | www.fairplayerclub.k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곽 글 주임 연구원 / 소 완 연구원
T. 02-749-2182/2149 | F. 02-749-2148 | E. fpc@globalcompact.kr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오지효 대리 / 김아름 연구원
T. 02-714-5964 | F. 02-749-2148 | E. infogcef@gmail.com

[페어플레이 서약서 다운로드]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2018 UNGC 신년인사: 리세 킹고(Lise Kingo) UNGC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정학적 문제들과 전 세계적인 불확실한 상황들 가운데,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세계를 위한 진정한 희망의 불빛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UNGC 의 10 대 원칙은 인간적 가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윤리적, 비즈니스적 기틀을 제공하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함께 이제 인류는 공동의 청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빈곤 완화부터 성평등, 기후 변화, 양질의 일자리까지 다양한 글로벌 우선순위들을 다루는 이 17 개의 글로벌 목표들은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보다 더 보편적인 개인 및 공동 행동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목표에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시장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이들을 고통 받게 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10 대 원칙과 글로벌 목표를 지지하는 강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혁신적 변화를 개척해나가는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리더들 말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지켜본 세 번째 사무총장입니다. 말하자면, '글로벌 콤팩트 3.0'이 도래한 것입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글로벌 콤팩트 이니셔티브 및 참여 기업 리더들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임팩트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강화하고 추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엔 아젠다 2030 과 17 개의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이제 5,000 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혁신을 이루고, 솔루션을 확대하며,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행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 년은 세계 인권 선언 70 주년의 해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기업들이 인권을 위해 전적으로 나서는 것을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지구 기후의 전환점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기후 변화에 더 주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2020 년 탄소 배출이 최고점에 다다른 후 점차 줄어드는 시나리오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포용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 불평등을 근절하고 모두를 위한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금융시장을 만듦과 동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 금융 및 투자의 막대한 재원이 우리는 새로운 길,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동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2030 아젠다의 실현을 위해 더 새롭고 급진적인 방법으로 협업하고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글로벌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자원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가이드를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약속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2018 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여정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세상을 보고 싶다면, 우리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임팩트를 추구합시다. 그리고 글로벌 목표들을 각국의 비즈니스가 되도록 합시다.

‘글로벌 콤팩트 3.0’에 다다른 여러분을 모두를 환영합니다.

- 원문보기

2.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제약 계의 로빈 후드: 씨플라(Cipla)

- 프로젝트 리더: 유수프 하미에드(Yusuf K. Hamied) 씨플라 창립자
- 프로젝트 지역: 인도 뭄바이

인도의 한 제약 회사는 역추적(reverse-engineering)을 통해 고품질의 복제 약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이 80 년 된 제약회사 씨플라(Cipla, Chemical, Industrial, and Pharmaceutical Laboratories, 화학, 산업, 제약 연구소)는 세 가지 약품(Nevirapine, Didanosine, Zidovudine)으로 이루어진 혁명적인 항에이즈 혼합제 약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후 연 350 달러의 가격으로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와 구호 단체에 해당 제품을 제공해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이는 대형 제약기업들로 하여금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씨플라는 자사의 하루치 약품을 1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했고, 이는 표준 가격의 30 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날, 에이즈 환자 세 명 중 한 명은 치료를 위해 씨플라 제품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거침없는 해적'이라고 묘사한 유수프 하미에드(Yusuf K. Hamied) 의사의 선구적인 항에이즈 치료제는 특허법의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특허를 갖고 있는 서구 기업들은 세 가지 조합의 항레트로바이러스 판매를 통해 수 조 달러의 수익을 내지만, 인도에서는 바이오시밀러의 카피 제품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 되고 있습니다. 수익보다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을 카피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1972 년부터 인도 정부가 음식과 건강에 분야에 있어서는 상품 자체가 특허를 획득할 수 없고, 오로지 그 생산 과정만 특허를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두적인 보건의료 기업으로 자리잡은 씨플라는 약 170 개국 내 수 백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필수적인 의약품의 가격을 보다 더 인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씨플라의 기업 비전은 'None shall be denied(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로, 모든 환자가 고품질의 적정가 약품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씨플라가 엄격히 관리하는 약품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세계 보건 기구(WHO)의 승인을 받았으며, 2 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씨플라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에이즈 약품 중 3 분의 1 을 생산합니다. 또한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Prozac)의 대체 약품인 누작(Nuzac)이나 비아그라(Viagra)의 대체 약품인 에렉토(Erecto) 같은 복제 약품들을 성공적으로 생산해냈습니다. 씨플라는 1 달러 이하의 항말라리아 약품을 만드는 한편, 다른 기업들이 약품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에이즈 바이러스 기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씨플라의 다음 목표는 저가의 암 치료제입니다.

연구에만 수 조 달러의 돈을 투자하는 대형 제약회사들에게 은퇴한 하미에드는 그야말로 '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하이메드와 씨플라는 제약계의 로빈 훗 같은 존재입니다. 하미에드는 "유대 속담에,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전 세계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 백만 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영상 보기

※ 본 컨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볼란스(Volans), PA 컨설팅, DO 스쿨(The DO School), 싱귤래리티 대학교(Singularity University), 이노베이션 아트(Innovation Arts)가 함께 참여한 Project Breakthrough에서 발췌, 번역 및 가공한 자료입니다. 무단 인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3.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책임경영교육원칙(PRME), 경영대학원들에 글로벌 목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책임경영교육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PRME)은 지난 2017 년 1 월 23 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고위급 만찬에서 오늘날 경영 교육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원 학장들과 선도 기업들 최고 경영자, 학계 리더, 기업 경영인 등 40 명여명은 현재 비즈니스 환경과 경영 교육 간 격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만찬은 또한 2018-2019 년도 'PRME 챔피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PRME 챔피언'은 38 개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목표에 부합하도록 교육, 연구, 파트너십에 눈에 띄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한 기관들입니다. 'PRME 챔피언'들은 다른 고등교육기관들이 글로벌 목표를 기관 운영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통해 자료들을 개발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참석자들에게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이 기회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PRME 를 통해 경영대학들과 협력하는데 전념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76 개 지역 협회들뿐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나스 허틀(Jonas Heartle) PRME 사무국장은 "경영대학원들은 미래 리더들의 역량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 지속가능성의 강력한 추진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과 17 개의 글로벌 목표를 위한 2030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등교육기간들의 비즈니스를 가르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윤리, 책임감 같은 가치관들을 교육, 연구, 학내 리더십에 더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07 년 출범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니셔티브, PRME 는 경영대학 순위 연구 시 글로벌 목표에 대한 노력을 함께 고려해, 교육, 연구 및 교내 활동에 있어 더 빠른 변화 보인 대학에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기후변화, 기아, 불평등과 같은 세계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이번 행사는 미래 리더들에게 비즈니스의 전체론적 목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만찬은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더 포용적이고 번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량과 도구, 가치관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책임경영교육원칙(PRME)에 대하여

책임경영교육원칙(PRME)은 2007 년 출범한 유엔 지원의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 교육기관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영학도들의 미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전 세계 650 개 회원들이 함께 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PRME 는 유엔과 경영 고등교육기관 간 최대 규모의 협력체입니다. 6 개의 원칙과 함께 PRME 는 경영대학들이 미래 리더들에게 경제 목표와 지속가능성 목표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원문보기
- 책임경영교육원칙(PRME)에 대해 더 알아보기

SDGs 소식

1. [Goal 4, 8] 국내 SDGs 우수이행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

Goal 9. 도시 경쟁력 강화와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

LH 는 쇠퇴하는 구도심의 회복을 통한 도시 경쟁력의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개축하여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하고 주상복합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 수요가 대규모 제조업 위주에서 첨단 융복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LH 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oal 10.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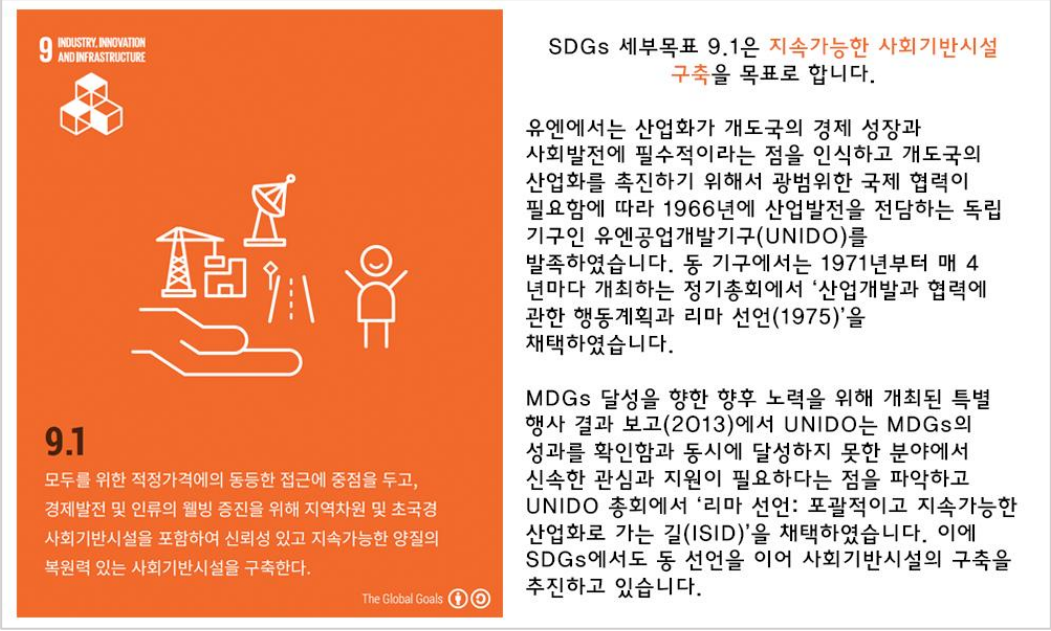
LH 는 1971 년 최초 임대아파트 건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며 사회도

이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LH 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계층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거취약계층, 은퇴세대 및 청년층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1 인 가구 증가에 맞춰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쉐어형 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으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 등을 위한 실버임대주택이나 귀농귀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촌이 되도록 주거복지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그 동안 LH 가 공급한 임대주택 규모가 100 만호에 이르렀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원조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리츠(REITs)와 같은 부동산금융 기법이나 민간협업 방식 등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H 는 SDGs 11 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의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bout These SDGs



SDGs 세부목표 10.4는 재정, 임금, 사회보장 정책 도입을 통한 더 높은 수준의 평등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ECOSOC, 2012)에서는 세계경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임금보호협약 (1949), 동일임금협약 (1951), 최저임금규정협약 (1970)과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 (1952), 균등대우 (사회보장) 협약 (1962), 사회안전최저선 권고 (2012)를 체결하여 국가별 임금 정책 및 사회보장 정책 마련에 기준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는 재정 정책뿐 아니라 임금, 사회보장 정책의 도입을 통한 평등 달성을 추진합니다.

SDGs 세부목표 11.1은 주택과 기초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및 빈민가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이는 양질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세계인권선언(1948)에 이어, 인간정주선언(1976)은 적절한 주거지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인간의 권리이자 정부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 거주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도시와 시골간의 간극과 도시 내에서의 간극을 줄이는 데 국내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 2차 유엔인간정주회의(1996)에서는 충분한 사생활, 공간, 접근성, 안정성, 조명, 온도, 위생, 식수공급이 충족되는 적정 가격의 거주지가 '모두를 위한 적절한 거주지'라고 규정한 '해비타트 의제'를 채택했습니다. 더불어, 이 의제에 기반하여 도시개발 및 도시화를 전담하는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이 2001년에 발족되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의제를 반영하여 적절한 주거지와 기초 서비스 제공 및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SDGs 우수 이행 사례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발행한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의 수록 내용 중 일부입니다.

2. [SDGs 시장 기회] 농촌 개발 이니셔티브

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적인 발전은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를 줄이는 한편, 도시의 과인 인구 문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농촌 및 소도시 주민들에게 적절한 생활 환경과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가난을 없앰과 동시에 도시로 이주할 필요성도 낮아질 것입니다. 농촌 지역의 소도시와 마을들을 위한 개발 전략에 투자하면, 친환경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도시로 향하는 인구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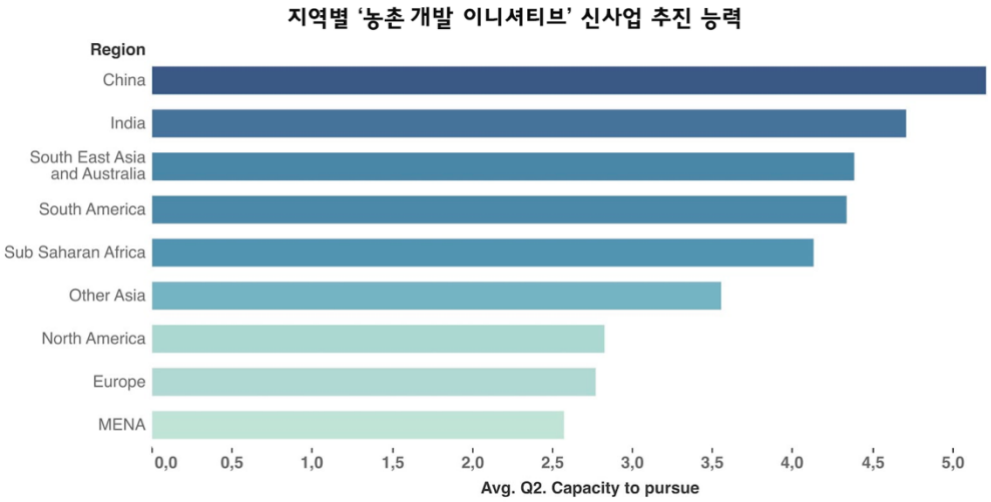
에너지 자원, 통신,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이니셔티브들은 광범위한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해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분산형 에너지, 휴대폰, 인터넷과 같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3D 프린팅 기술 등은 통한 손쉬운 생산이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농촌 발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휴대폰은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보급되었습니다. 또한 분산형 에너지, 특히 태양열 발전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미 개발도상국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과 원격교육 등의 형태로 이러한 기술들이 농촌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부들에게 기상 예보나 시장 정보를 전달해 시골 경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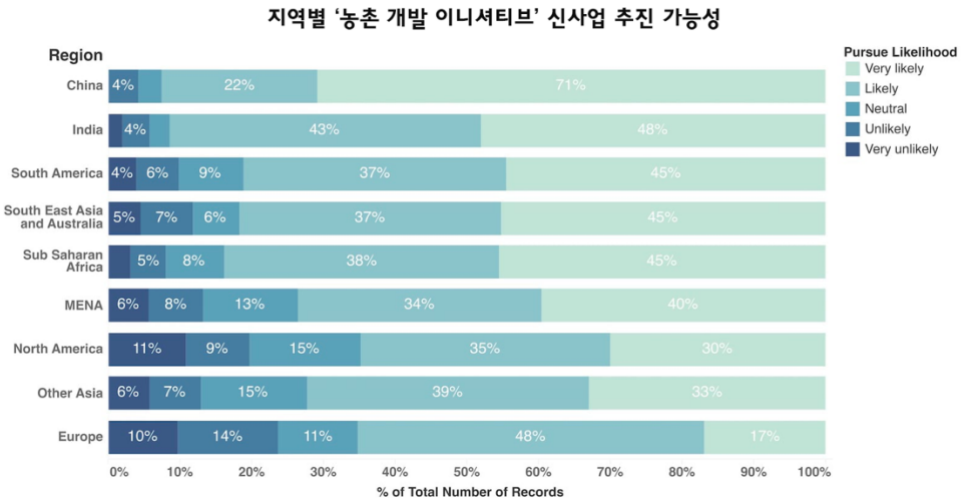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다수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가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빈곤 인구의 85%가 농촌 및 소도시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지역들의 발전은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사 결과

'농촌 개발 이니셔티브' 시장 기회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한국,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본 시장 기회가 사회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인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은 2014 년 전체 시장 기회 중 이 기회를 그만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산업 부문의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2014 년 서베이에서는 부문별로 매우 다른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융 부문은 이 기회의 사회적 영향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제조업 및 공공 부문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북아메리카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응답자 중 60%는 이 시장 기회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까지 최소 5 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의 응답자들은 이 시장 기회가 4 년 내에 충분히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는 2015 글로벌 기회 리포트(Global Opportunity Report 2015)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농촌 개발 이니셔티브'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 본 컨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서스테이니아(Sustainia), DNV GL 이 함께 참여한 Global Opportunity Explorer 에서 발췌, 번역 및 가공한 자료입니다. 무단 인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회원사 뉴스

1. [Case Study] 오지마을 누비는 5G 버스...평창은 지금 특별한 변신중

MK 뉴스 인쇄하기

[Case Study] 오지마을 누비는 5G버스…평창은 지금 특별한 변신중

평창올림픽 후원기업들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기사입력 2018.01.12 04:04:01 | 최종수정 2018.01.24 09:58:35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뒤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 궤적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았다. 평창은 지금 올림픽 후원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날로 진화하고 있다. [평창 = 김호영 기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독창적인 사회공헌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KT는 평창 내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한 마을 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퇴치 솔루션을 구축했다. PTZ(Pan-Tilt-Zoom)카메라와 레이더가 멧돼지를 확인하면 빛(1단계), 소리와 기피제(2단계)로 멧돼지를 쫓아내는 방식이다. 통신 기업이 올림픽을 앞두고 멧돼지 퇴치 솔루션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음.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최근 '지속가능한 메가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들을 대표적인 평창 지속가능성 파트너 사례로 선정해 발표
- KT는 의야지마을에 세계 최초 5G 빌리지를 만들어 멧돼지 퇴치 솔루션, 드론 체험, 5G AR 마켓 등의 신기술로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함.
- 코카콜라는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평창의 자연 환경을 고려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음.
- 원문보기 (매일경제)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상 첫 '여성 별' 나왔다

중앙일보

인쇄하기 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상 첫 '여성 별'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2018.01.30 10:08 수정 2018.01.30 10:47

56년 만에 여성 임원 임용
29년 경력의 장옥선 상임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6년 역사상 첫 여성임원을 임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옥선 상임이사

LH 첫 여성 임원으로 임용된 장옥선(**사진**) 상임이사는 1988년 LH 입사 후 주거복지처장, 도시계획처장, 산업단지처장, 경영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29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인정받아 LH 첫 여성 임원으로 선임됐다고 LH는 설명했다.

장 이사는 1962년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1975년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여 2009년 출범한 LH 56년 역사상 첫 여성임원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56년 역사상 첫 여성임원 임용.
- 장옥선 상임이사, 29년 경력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인정받아 선임.
- 한편 LH 박상우 사장은 2015년 취임 이후 양성평등기업 실현을 위해 여성 관리자를 적극 등용해 차장급 여성 관리자가 2배 이상 증가, 첫 여성임원 배출로 이어짐.
- 원문보기 (중앙일보)

3. 신한금융 지속가능경영 100 대 기업 6 년 연속 선정...국내기업 유일

파이낸셜뉴스

글자크기 줄간격 인쇄하기 취소

신한금융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6년 연속 선정...국내기업 유일

박하나 기자 | 입력 :2018.01.23 15:40 | |수정 : 2018.01.23 15:40

신한금융그룹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글로벌 100)'에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2013년 처음 선정됐으며 올해도 46위에 올랐다. 국내 금융사 중 100위권에 든 곳은 신한이 유일하며 순위권내 금융사 중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100'은 캐나다의 투자 리서치 및 미디어 그룹인 코퍼레이트 나이츠가 평가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지수로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다보스 포럼을 통해 발표된다.

- 신한금융그룹,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선정.
- 신한금융은 2013년 처음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전체 46위, 금융사 중 4위를 기록함.
- 100대 기업은 투자 리서치 및 미디어 그룹 코퍼레이트 나이츠가 혁신역량, 리더십다양성 등 17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됨.
- 신한금융은 2005년 금융사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올해부터는 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체계인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추진.
-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CSR 뉴스

1. [Case Study]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래는

MK 뉴스 인쇄하기

[Case Study]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래는

환경파괴 반성서 시작…지역사회 문제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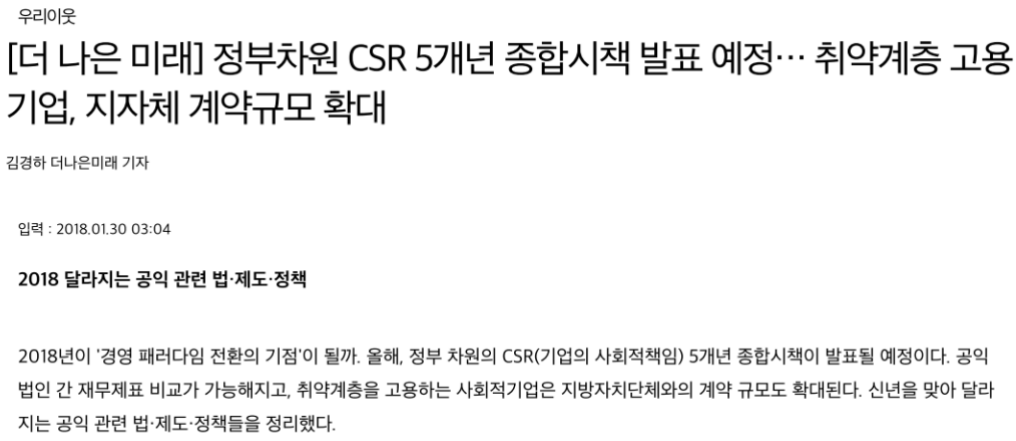
가사입력 2018.01.12 04:04:02

올림픽에서 환경 보호를 비롯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기 시작한 건 1994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릴레함메르동계올림픽이었다. 직전에 열린 프랑스 알베르빌동계올림픽이 최악의 환경 오염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릴레함메르올림픽조직위원회는 나무 한 그루도 훼손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나무마다 가격이 적힌 리본을 붙였다. 훼손 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차원의 노력도 뒷받침됐다. 1996년 올림픽 헌장에 환경 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1995년에는 스포츠와환경위원회(Sport and Environment Commission)가 설립됐다.

- 지속가능성,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중요한 가치로 부상. 이후 1995년 스포츠와 환경위원회 설립 후 1996년 올림픽 헌장에 환경 보호에 대한 내용이 추가.
- 2010 캐나다 밴쿠버올림픽과 2012년 영국 런던올림픽, 사회, 환경, 경제 세 가지 영역을 아우르는 트리플 보텀 라인을 최초로 정식 채택.
- 기업도 올림픽 지속가능성에 동참. 다우케미칼은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 당시 산업 핵심 분야에 저탄소 기술을 접목. 코카콜라는 런던 올림픽에서 '스트리트 게임'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원문보기 (매일경제)

2. 정부차원 CSR 5 개년 종합시책 발표 예정… 취약계층 고용기업, 지자체 계약규모 확대



우리이웃

[더 나은 미래] 정부차원 CSR 5개년 종합시책 발표 예정… 취약계층 고용기업, 지자체 계약규모 확대

김경하 더나은미래 기자

입력 : 2018.01.30 03:04

2018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

2018년이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기점'이 될까. 올해, 정부 차원의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5개년 종합시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공익법인 간 재무제표 비교가 가능해지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규모도 확대된다. 신년을 맞아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들을 정리했다.

- 올해 정부 차원의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5개년 종합 시책이 발표될 예정.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정부가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촉진하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
- 사회적 경제 기업 수의계약 체결 가능 금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됨. 이는 취약 계층이 일정 비율 이상 고용된 사회적 경제 기업만 해당됨.
- 통일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 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 함.
- 2018년부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할 예정.
- 원문보기 (조선일보)

3. 국민권익위,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 바꾼다

중앙일보 인쇄하기 취소

국민권익위,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 바꾼다

[중앙일보] 입력 2018.01.30 08:59 수정 2018.01.30 09:00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직 이름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조직 위상을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다.

- 권익위,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인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됨.
- 곽형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지난 11일 입법 예고된 당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서는 개편 조직 명칭이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으나,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했다"
- 원문보기 (한겨레)

4. 다보스서 지속가능개발 위한 민간역할 강조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 재원의 중요성을 강조.
- 강 장관은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기술과 혁신 등을 통해 민간 재원 확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또한, 외교부도 재외공관을 활용한 우리 기업 지원 등 우리 기업 활동에 유리한 개방형 대외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원문보기 (연합뉴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 월 16 일부터 2 월 1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 입니다.

- (주) BGF

2. COP/COE 제출회원

1 월 16 일부터 2 월 1 일까지 3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 서울산업진흥원
- 대우건설
-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 **2018 년 연회비 납부 기업 (납부 기한: 2018 년 3 월 30 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극지연구소, 슬로워크, 콘크리닉, 유프러스건설, GS건설, 두산중공업, 구미시청, KT, 한국국토정보공사, 유니베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LG화학, 신한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前 대한주택보증㈜), SK텔레콤, 한국광물자원공사, 하나은행, 팬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뇌교육협회,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케이티하이텔

※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 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